

백애경 작가 ‘장미와 청어...’ ‘쇼팽과 호박...’ 출간



광주에서 활동 중인 ‘인문여행가’ 백애경 작가가 일반 단
체여행객들이 흔히 찾지 않는 유럽 국가들을 다녀온 뒤
쓴 여행기 두 권을 동시에 출간했다. 옛 동구권에 속하는
발트3국과 폴란드를 다룬 책으로, 이 지역을 꿈꾸는 예
비 여행자들에게 실질적인 정보와 인문학적 배경을 전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백 작가가 선보인 책은 ‘장미와
청어, 발트3국에서 7일’(이하 ‘발트3국’), ‘쇼팽과 호박,
폴란드에서 9일’(이하 ‘폴란드’) 두 권으로, 모두 다큐북
스에서 출간됐다.



라트비아 룬달레 성

인문 여행가가 쓴 친절한 동유럽 도시 여행기

발트3국, 폴란드 역사 인문학적 시선으로 담아

김옥열 다큐사진과 함께 읽는 낯선 유럽의 풍경

‘발트3국’은 이름조차 낯선 동유럽의 에스토니아, 라트비
아, 리투아니아를 함께 둘러보고 쓴 여행기다. 최근 우리 남자
농구대표팀 감독으로 리투아니아 출신 지도자가 선임되며 해
당 국가가 화제가 됐는데, 이 리투아니아가 바로 발트해 인근
에 자리한 발트3국 중 하나다.

발트해 주변 3국은 서로 독립된 국가이지만 나란히 붉은 소
국들로, 주변 러시아·독일·프랑스 등 강대국들
에 오랜 세월 짓밟히고 박해받은 서러운
역사를 공유해 일종의 형제국으로
불린다. 우리가 일제강점기 아
래에서 겪었던 아픈 기억처
럼, 발트3국 역시 수많은 상
처를 겪어온 셈이다. 각 국
은 고유한 문화를 간직하
면서도 국제무대에서는
공통의 입장을 견지하는



폴란드 그란스크 두우가거리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백 작가는 “이들 국가가 영토가 작고 옛 소련 지배를 받았던
탓에 서방에 잘 알려지지 않아 국내에서는 더욱 낯선 편이지
만, 알고 보면 우리와의 인연과 역사적 동질감도 적지 않다”
고 설명했다.

발트3국 곳곳에는 중세 유적과 문화가 비교적 잘 보존돼 있
고, 개성 있는 도시들이 발달해 있어 여행자들에게 다양한 볼
거리를 제공한다. 책에는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각 도시의
풍경, 옛 역사와 문화의 흔적을 꼼꼼히 따라가며 기록한 여정
이 담겼다. 제목에 들어간 ‘장미’와 ‘청어’ 역시 이 지역의 상징
성을 반영한다. ‘장미’는 라트비아 국가였던 노래
‘백만 송이 장미’에서, ‘청어’는 중세 유럽
경제를 좌우하던 발트산 청어의 주
요 집산지인 리투아니아의 역사
에서 비롯된 표현이다.

또 다른 책 ‘쇼팽과 호박,
폴란드에서 9일’은 쇼팽,
퀴리 부인, 바웬사,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등으로
잘 알려진 폴란드 곳곳을

담은 여행기다. 역사적 사실과 인물 면에서는 우리에게 익숙
하지만, 실제 여행지로서의 폴란드는 여전히 다소 거리감이
있는 나라다.

이 책은 최근 한국과 폴란드 간 경제 교류가 크게 늘고, 인천
에서 폴란드 두 도시로 직항편이 운항될 만큼 가까워진 현실을
짚으면서 오랜 역사를 지닌 이 나라의 현재 모습을 소개한다.

특히 광주와 매우 유사한 역사적 슬픔을 품은 도시 그단스
크, 2차대전 폐허 위 재건된 역사도시 바르샤바, 유대인 학살
현장인 아우슈비츠의 풍경과 기억을 차분히 풀어낸다.

두 권의 여행기에는 글뿐 아니라 사진이 중요한 축으로 실
렸다. 광주에서 활동 중인 김옥열 다큐사진작가가 함께 여행
하며 촬영한 도시 풍경과 현장의 장면을 풍부하게 담아 독자
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백애경(사진) 작가는 “해외여행이 대중화됐
음에도 불구하고, 시중 여행 정보의 상당수는
동선 파악과 같이 기본적인 안내 수준에 그치
고 있다”며 “이 두 권의 책은 그 한계를 넘어, 역
사·종교·문화·전쟁 등 해당 국가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인문 지식을 바탕에 깔고 여행지
를 소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명진 기자



AI 시대, 도서관의 역할을 다시 묻다

경제학자 우석훈 ‘힘내라, 도서관!’ 출간

대부분 사람들에게 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읽고 빌릴 수 있
는 곳, 논문이나 학술 자료를 찾아볼 수 있는 곳, 조용한 환경
에서 공부할 수 있는 곳 정도일 것이다. 그렇다면 당신이 마지
막으로 도서관에 갔던 때는 언제인가. 아마도 학창 시절을 제
일 많이 꿈꿀 것이다. 궁금한 것은 즉각 AI에게 물어보고, 책
도 이북으로 쉽게 접할 수 있게 되면서 도서관의 존재는 점점
잊혀가고 있다.

작금의 시대, 경제학자 우석훈은 도서관의 경제적 효과
에 주목하며 도서관만이 가질 수 있는 가치를 설득하기 위한
책 ‘힘내라, 도서관!’(오픈하우스)을 펴냈다.



도서관은 왜 필요할까. 그건 바로 도서
관이 생김으로써 그 지역에 시민들이 논
의하고 협력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겨나고,
지역이 사람 사는 공간으로서 작동할 수
있게 해주는 진짜 인프라가 되기 때문이
다. 무료로 책을 읽거나 빌리는 곳에 불과
했던 도서관은 이제 지역 주민들의 쉼터이자 문화센터, 소외
계층을 위한 돌봄 기능까지 담당한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
역일수록 주민들이 모일 수 있고 공공력이 작동할 수 있는 공
간이 드물다. 도서관은 그 역할을 할 수 있다.

특별한 공식 교육을 받지 않고 독학으로 책을 읽으면서 언
론인이 된 인쇄공 프랭클린이 미국 건국의 아버지가 된 배경
에는 분명 도서관의 역할이 크게 자리한다. 퇴역 대령이 만든

마을의 작은 도서관이 소년 노동자였던 카네기를 세계적인
부호 강철왕 카네기로 이끌었다.

한국 경제의 도약기에도 도서관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한
국에서는 역설적이게도 군사정권 시절을 거치면서 도서관 건
립 붐이 일어났다. 1960년 18개에 불과했던 공공 도서관이 박정
희 시대를 거치면서 119개로 늘었고 전두환 때를 거치며 232개
로 급증했다. 경제개발5개년계획과 공공도서관설치5개년계
획이 거의 동시에 진행됐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한
국식 계획경제의 한가운데에 도서관이라는 요소가 포함돼 있
었던 것이다. 도서관이 지역에 구심점 역할을 하고 국민들의
지식 수준을 높이는 역할을 하면서 한국도 경제강국이 됐다.

이 책에서는 미국을 비롯해 한국, 일본 등에서 어떻게 처음
도서관이 생겨났는지, 도서관의 성장이 국가 경제 발전에 어떤
기여를 해왔는지 살펴보고, 그동안 잘 몰랐던 도서관과 사서의
진짜 역할에 대해 심도 있게 다룬다. 또한 AI 시대 도래 및 지역
소멸에 따른 도서관 위기론, 소외받는 도서관 정책을 어떻게 개
선해 나갈지에 대해서도 해법을 찾아본다. /최명진 기자

새로 나온 책



▲문화통Plus 2025 겨울호
광주문화발전소의 문화통 plus
겨울호 통권(57호)이 발간됐다. 이
번 호는 에디터레터 ‘고봉밥’을 시
작으로, 전라도 문화수수께끼 ‘강
진 의마총에서 아직도 제사를 지
내는 까닭’, 음식으로 읽는 문화 ‘불고기의 유래’, 전
라도 밥상 ‘민어와 청계를 넣어 담구는 어육간장’에
대한 글을 실었다. 장기시리즈 ‘전남의 마을 1박2일’
에서는 훈민정음 창제 최항과 임란의 충절 정백리
최충원 등을 배출한 낙성최씨를 집중적으로 다뤘
다. /광주문화발전소



▲말할수없는것들을위한파반느
=김윤수 저자
이번 시집을 관통하는 것은 ‘존
재’다. ‘존재’라는 철학적이거나 생활
적인 목적인 주제를 바탕으로 한
시편들은 자신과 타자에 대한 교감
의 영역을 확장시키며 작품의 층위를 한층 높이고
있다. 무엇보다 김윤수의 시들은 주제의 힘이 강하
다. 다양성과 오묘조밀함의 무게 추가 주는 시들이
독자의 눈길을 끈다. 김정수 시인은 “김윤수 시인은
존재와 부재, 사람과 사람, 말과 말, 꿈과 현실, 물과
바다 등 이들 사이의 오랜 시간을 건너온 다양한 삶
의 문양을 그려낸다”면서 “탄탄하고도 집요한 집념
의 시 쓰기를 하고 있다”고 평했다. /작가마을·1만2천원



▲어디서 무엇이 되어도=손덕순
저자
이번 디카시집에서 관심을 끄는
것은 ‘나’와 ‘너’라는 관계를 주제
적인 대상으로 인식하는 태도다.
시인은 생명성에도 적극적으로 천
착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 지구촌에서 일어나고 있
는 생명의 위기를 비롯해 생명의 고귀함, 그리고 생
명의 영원성을 노래하고 있다. 강경호 한국문인협
회 평론분과 회장은 “시인의 디카시는 사진 텍스트
의 주제가 시각적으로 집약적이어서 선명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며 “이러한 이미지를 자신만의 개성있
은 목소리로 끊임없이 갱신하려는 시도를 보여주고
있다”고 평했다. /시와사람·1만5천원



▲이야기의 신=한운섭 글, 이로
우 그림
새로운 이야기, 재미있는 이야
기, 무서운 이야기, 웃기는 이야기,
슬픈 이야기 등. 이야기는 지난간
시간의 추억이자 미지의 세계에 대
한 상상, 다가올 미래에 대한 기대이면서도 살아 보
지 못한 삶에 대한 호기심이다. 이 책은 특정한 인물
을 내세워 뒤 이리저리러한 줄기를 엮고 엮어서 끌고
가는 여는 동화들과는 다르다. ‘이야기의 신’을 내세
워 독자와 함께 반경을 채워 가는 방식이다. 책장을
한 장 한 장 넘기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이야기를 짓
고 있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다. /라임·1만4천800원

광주매일신문을 펼치면 광주·전남의 미래가 보입니다

지역의 품에서, 독자의 곁에서 늘 사랑받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시내 지국

- 중앙지국 222-8171
- 산수지국 224-4188
- 학운지국 673-6836
- 화정지국 372-9140
- 금호지국 376-7153
- 풍암지국 603-0311
- 노대지국 674-3581
- 상무지국 453-2554
- 광천지국 374-2120
- 진월지국 676-2726
- 봉선지국 673-6836
- 백운지국 673-0123
- 두암지국 266-1920
- 농성지국 362-4102
- 유동지국 222-8171
- 운암지국 529-3548
- 용봉지국 261-1503
- 신가지국 954-1420
- 양산지국 574-3745
- 하남지국 951-9954
- 운남지국 952-1687
- 오치지국 261-9461
- 문흥지국 261-9462
- 일곡지국 573-3200
- 첨단지국 971-7374
- 치명지국 371-9584
- 수완지국 955-0451
- 광산지국 944-0993

지방 지사

- 목포지사 061)270-8689
- 동문포지사 061)278-0740
- 남목포지사 061)245-3797
- 신안지사 061)980-8300
- 순천지사 061)746-1600
- 여수지사 061)651-6433
- 나주시 061)335-0005
- 광양지사 061)793-6800
- 구례지사 061)782-4696
- 담양지사 061)383-5566
- 곡성지사 061)362-5746
- 여수지사 061)651-6433
- 보성지사 061)852-6644
- 화순지사 061)373-7795
- 장흥지사 061)863-6800
- 강진지사 061)432-8899
- 해남지사 061)535-5849
- 영암지사 061)473-7151
- 무안지사 061)453-3645
- 함평지사 061)322-0882
- 영광지사 061)353-5133
- 장성지사 061)394-3636
- 완도지사 061)555-0134
- 진도지사 061)542-4330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자로 338번길 16(구동1-21) ▶ 대표전화:062)650-2000 ▶ 구독문의:062)650-2022